



김성우 취재부장

budchapia5@hanmail.net



### 인재불사의 현주소

안양 보장사 주지 덕해 스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99년. 보장사 청년회 활동을 취재 중 우연히 공양실에서 노스님을 뵈었다. 마침 겨울이었는데도 일흔이 넘는 노스님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냉방에서 지내면서도 삼보정재를 아껴가며 보문 중·고등학교와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후 3년이 지난 2002년 어느 날, 스님은 아직도 방의 보일러를 고치지 않은 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故 관음 스님의 판상좌이자 친조카이기도 한 스님의 원력과 무수히 실천은 청정 승가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76세의 고령임에도 도량 청소, 새벽 중성 등 행자들이 할만한 곳을 일을 몸소 실천하며 키워온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개교 6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이사회의 황은식 총장 해임으로 촉발된 학내 구성원들의 분열은 급기야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 지위마저 박탈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교수는 보직해임 되고, 재학생의 1/3에 달하는 학생 46명은 학교 측의 등록거부보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의 교수, 학생 등이 각각 주장하는 경영권과 교수권, 학습권 보장이 나름의 이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학교 설립자의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삼보정재를 아껴 학교를 당시의 분신과 같이 키운 공덕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계 최초·최고의 대학원대 학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시점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한국불교 인재양성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때마침 동국대교수회가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동국대 교수 75%가 오 총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재선임 목소리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자, 설상가상의 암울함이 느껴진다.

불교계는 조계종립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를 비롯해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 등 4년제 대학 네 개와 서울불교대학원대,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 등 대학원대학 두 곳을 운영중이다. 이웃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시설 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불교중흥은 고사하고 불교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종교관행사건으로 인해 인재불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교단차원의 교육시스템 확립과 관리 및 발전방안 수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다.

## 정부예산은 6.5%↑ 문화재예산은 1.5%↓

### 문화재보수 10%·보존관리예산 16.9% 축소 조계종 “문화재 예산 현실화해야” 논평

내년도 정부 예산안(총지출액 기준)이 총 273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하는 것과 달리 문화재 예산은 15%(64억원) 줄어든 4천214억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재보수예산 10% 삭감,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이 금년대비 16.9%나 축소된 데다 비지정문화재 보호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교계와 문화유산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10월8일 2009년도 정부예산안(안) 중 문화재청 예산은 42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대두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는 5개년 계획으로 총 1769억원이 연차 투입

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사적 170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등이다. 이를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10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29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 121개소에 대한 수막시설·방수층 등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160억원, 목조문화재 장기감시인력 배치 23억원, 궁중유물 장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46억원 등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문화재지리정보(GIS) 활용체계의 조기 구축 등을 통한 매장문화재조사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자 이 부분 예산으로 46억원을 지원한다. 또,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에 금년(116억원)보다 25억원(21.5%)이 증가한 141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예산이 10~16%나 삭감돼 불교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10월 14일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고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적 스님은 논평을 통해 "우리 종단은 문화재청 예산이 1.5%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적 스님은 이어 "금년 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보 1호 승례문 방화사건과 2005년 낙산사 화재로 소중한 문화재가 전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창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chapia5@hanmail.net

###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합천 해인사, 25일 대적광전 도량에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25일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전계대화상에 중정 법전 대종사(사진), 갈마아사리에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 교수아사리에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모시고 봉행되는 무생계(無生戒) 수계대법회는 2005년부터 시작된 해인사만의 독특한 수계법회의 명칭.

2005년 발굴된 목조비로자나불 존상(현존 최고 목조불상)의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지공화상의 '문수보살 무생계첩'에



의거, 작법을 복원해 현대인에 맞는 생활 규범으로 재조명할 것이다. 해인사 여해 스님(홍보미디어 국장)은 "무생계 수계법회는 종정스님께서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보살계 수계법회"며, "가야산 단풍 또한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종지협, '제12회 종교문화축제'

10월 2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한마당이 열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0월 2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2회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아, 마음의 스승을 만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생명의 나무 점등식'을 시작으로 '종교문화 끝내달', '청소년 예능경

연대회', '종교 북가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각 종교별 3개씩 총 21개의 부스가 설치돼 사명대사, 손양원 목사 등 위인과 경전을 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소년 종교문화탐방단의 사진전시 및 UCC 동영상 상영과 사진작가들의 종교 건축물 사진전, 소년소녀 종교연합 합창단의 공연과 김장훈, 별, 자두, 용산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02)792-5040 노덕현 기자

### 포교원, 청소년 특화 간화선 보급 나서

집중력향상 등 학업능력 배양으로 포교 활성화 기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10월 25~26일, 11월 8~9일 2차에 걸쳐 남양주 봉선사에서 시범운영되는 수련회에는 원철 스님과 무각 스님의 지도하에 화계사 학생회와 동대부중 재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일반인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맞춰 특화된 기초수행법을 보급하

는데 의미가 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호흡법부터 심성교육까지 수행의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배우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좌선과 명상법을 체험할 예정이다.

혜총 스님은 "간화선을 익힌 청소년들은 집중력·주의력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해소가 기대된다"며 "시범 실시 후 장단점을 보완해 더 많은 이들에게 폭넓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907 노덕현 기자

### 10·27 위원회 민간위원 확정 원학·세영·삼보 스님 등 7명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27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10월 21일 확정하고 위원명단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했다.

선정된 민간위원은 원학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세영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법다 스님(10·27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장), 삼보 스님(10·27 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과 이근우 전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장, 윤원호 전 국회의원, 허남오 전 병무청장 등 7명이다.

조계종이 국무총리실에 위촉인사 7명을 선정해 통보한 것은 국방부와 의 민관합동TF팀이 시행령 공포 후에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을 정부인사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국무총리실 위원회 구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상태로 위원회 구성 후 사무조직과 운영규칙 마련 등 10·27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불교진흥원, 군포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10월 13일 이사실에서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 일민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 진흥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군중교구에 군법당 건립과 군불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임연태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사 사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불영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c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news.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나라안정기원 및 불교중흥대법회

### 총회 전문

우리불교가 세상에 태어난지 2600여년 중국의 실크로드를 거쳐 이땅에 전래된지 1600여년이 흘렀으며 수많은 세월속에 시시비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는 1988년 5월 28일 불교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수없이 많은 종단이 설립되어 단 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화합만이 불교를 발전시키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적으로는 상구보리 화해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외적으로는 일불제사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종단간의 우호증진과 화합을 목적으로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를 창회하여 선포하오니 사부대중 2천만 불자는 합심단결하여 불법홍포에 전력을 다할지니라.

1989년 10월 일

### 창회자 일동

일봉 서경보 스님 외 7인

### 임원진

- 총재 인왕 신판석(세계불교승왕청 대표)
- 부총재 보리 현 광(대한불교달마선종 총정)
- 부총재 청원 박수용(대한불교불광종 총정)
- 부총재 법가지 오(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 부총재 신흥 안병천(대한불교대원종 총정)
- 회장 의륜 서주범(근본불교조계종 총총주)
- 부회장 일산 법 진(호국불교후예종 총정)
- 부회장 청암 도한수(대한불교 총남종 총정)
- 부회장 만주 조성수(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 부회장 심향법 장(구산선문화 회장)
- 부회장 연화덕 산(대한호국불교소립선종 총무원장)
- 자문위원 대천 문연우(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정)
- 자문위원 월담 성 인(세계불교해동화엄종 총정)
- 자문위원 법봉 박순균(천지불교태극종 총정)
- 감사 해천 최진형(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이사 청파 안종여(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이사 해광 문동춘(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 이사 해성 정 일(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 이사 안심 박영주(종단세계선불교 대표)
- 이사 월단 (대한불교용화세계기미특종 대표)
- 이사 향덕 박승의(대승불교조계종 대표)
- 이사 해일 윤종희(한국불교기독교선종 총무원장)
- 이사 의천 권홍수(한국불교문화진흥회 회장)
- 이사 혜덕 월 명(한국불교여래조계종 대표)
- 이사 원각 한경수(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 이사 태원 최진동(대한불교일월종 총무원장)

\*회원명단은 홈페이지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법회 안내

- ◇ 일시 :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음, 10월 20일) 12시
- 입장 : 11시 30분(식전행사) / 법요식 : 12시
- ◇ 장소 : 서울팔레스호텔대연회장 (강남고속터미널 뒷편)
- ☎ 02)2186-6867~9
- ◇ 주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32-2)
- ◇ 문의 : 011-352-7751 / 011-356-3427 / 팩스 02)3281-0108
- ◇ 자세한 내용은 연합불교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